

문화

■광주시립미술관,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전

그녀의 드라마틱한 예술세계를 엿본다

탄생 100주년 기념, 7일~8월21일 사진·그림·영상물 선배

'사도성의 이야기' 다큐 상영... 12일 성기숙 교수 특별강연도



1931년 현대무용



1942년 보살춤

식민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을까? 그것도 '춤은 화류계 여자들 이나 추는 것'이라던 조선에서 무용수로 살아가야 했다.

일본과 유럽에서 사랑받던 무용가 최승희(1911~1969년)는 '최초의 한류 문화 스타' '친일·공산주의자'라는 엇갈린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춤과 인생은 과격적이었고, 알뜰했던 조선에 한 줄기 희망을 안겨줬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한국 근대무용의 여명을 연 최승희(1911~1969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7일~8월21일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승희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 150여점과 그림 4점, 영상물 등을 선보인다. 그녀는 공연 포스터와 리플렛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연에 앞서 사진을 찍었고, 모델 촬영을 하면서도 많은 사진을 남겼다.

이번에 소개되는 사진은 정병호(전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씨가 일본, 중국, 몽골 등지를 돌며 수집한 것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일괄 구입한 것들이다.

또 함께 소개되는 그녀를 그린 회화와 공연 리플렛, 책, 신문 기사 등 희귀자료는 그녀의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최승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그녀가 유행해 안무한 '사도성의 이야기' 등 희귀 영상물을 곁들여 드라마틱한 그녀의 예술 세계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는 '최승희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최승희탄생100주년기념회추진위원장)의 특별 강연이 펼쳐진다.

최승희는 열 여섯살 때 한국을 찾은 이시이 바쿠의 공연을 보고 무용을 시작했고, 1929년 서울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차리며 한국 전통 무용에 눈을 돌렸다.

그녀는 승무와 갈춤, 부채춤과 가면춤 등 지방에 숨겨져 있던 한국의 춤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유럽에서 최승희의 춤은 정교함에 신비감이 더해져 인기가 높았다.

1938년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인 샬르 플레엘에서 유럽 첫 공연을 가졌는데, 그때 선보인 작품 '초립동' 덕분에 파리에서는 초립동 모자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피카소, 장 콕도, 로망 롤랑 등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앞다퉈 찾아오기도 했고, '피카로' 지는 최승희에 대해 "신이 환상적인 동양 최고의 무희"라고 극찬했다.

또 신라장군 황창을 기리는 춤인 '검무' 고려말기 황진이와 고승을 유혹하려 한 '승무'뿐 아니라 '아리랑' '화랑의 춤'으로 한국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는 1942년부터 2년간 100회가 넘는 일본군 위문공연을 해 친일 논란에 휩싸였고, 해방 직후 사회주의 문학을 하던 남편 안막을 따라 월북하면서 국내에서 이름이 잊혀졌다. 그녀는 통치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062-613-7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춤을 위한 관현악

시립국악관현악단, 내일 '봄 바람 아지랑이' 공연

국악관현악과 전통춤이 만났다. 국악관현악과 플루트가 만났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이 '봄 바람 아지랑이'를 6일 오후 7시30분 광주주목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전곡을 한국무용과 함께 선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김미숙(광주무용협회장) 조선대교수가 이끄는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다양한 창작 국악곡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인다. 출연 무용수는 최인경·정윤선·배지원·이정민·김수영씨 등이다.

눈에 띄는 무대는 플루트와 관현악이 어우러진 '무용환상곡'이다. 플루티스트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씨가 협연하는 이 곡은 플루트와 피리의 2중주 등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느낌을 전해준다.

또 '춤을 위한 갠지강'에서는

진준한(풍물 세상 꽃패 마루 대표)씨의 삼도플루티기가 펼쳐진다.

그밖의 연주곡목은 가아금 연주자 황병기의 대표작인 '침향무', 대금이 함께하는 영화 '서편제'의 주제 음악, 봄의 생동감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박범훈 곡 '춘무', 역동성과 흥겨움이 묻어나는 이경설 곡 '덧'으로 사는 세상' 등이 공연된다.

김형석(대금), 김성이(가야금)씨 등 관현악단 단원들이 독주자로 나서며 안혜란(노래)씨 등이 함께 무대에 선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문의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휘자 심인택



플루트 이현경



김미숙 뿌리 한국무용단

(Tong&通 Day)

우리문화예술원, 오늘 '통통데이' 문화잔치

(사)우리문화예술원(이사장 김태훈)이 삼월 삼짇날을 맞아 푸른길 마을 잔치를 연다.

5일 오후 5시부터 푸른길 분수공원(옛 산수동 굴다리터)에서 열리는 이번 잔치는 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통통데이(Tong&通 Day) 문화잔치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무진농악단 푸른길 질곳길놀이, 판굿, 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의 풍물재수굿, 나주 여성농업인센터 공연, 통기타가수 임용씨, 바이올

리니스트 김동민씨 공연, 통통염서나누기, 진달래 화전 체험, 민속놀이 체험, 우리차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우리문화예술원이 정한 '통통데이(Tong&通 Day)'는 상업화된 기념일이 아닌 편지 한장, 엽서 한장, 문자 등을 통해 서로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는 날로 음력으로 월과 일이 같은 날을 말한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Beethoven violin Sonatas

박다현·구재향 듀오 리사이틀

12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특정 작곡가의 전곡(全曲) 공연에 나서는 것은 연주자에게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도전할 만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 구재향(호남신학대 교수)씨와 바이올리니스트 박다현(광주시립교향악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전곡(全曲) 연주회를 함께 열고 있다.

2008~2009년에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6곡) 연주회를 열고 지난해부터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0곡) 연주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첫번째 무대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4번을 연주했던 두 사람이 올해도 그 여정을 이어간다.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에 들려주는 곡은 일명 '봄'으로 알려진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을 비롯해 작곡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에게 헌정돼 흔히 '알렉산더 소나타'로 불리는 소나타 6~8번이다.

전곡 연주회의 마지막은 오는 10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소나타 9번과 10번, 로망스 1·2번을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4년의 여정을 함께 해온 두 사람은 실내악 그룹 무지크바움 앙상블에서 함께 활동하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박씨는 중앙대와 독일 드레스덴음대에서 수학했으며 구씨는 서울대와 신시내티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병원(법률공인) 상설로 입구: 022276-059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산점(구.시원해안) 030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현로)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아울렛 031469-0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금민동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 032039-4400 부산 서면점(사면로)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업로)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전주점(구.동명시장) 0551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성덕점(성덕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라미점) 053425-7575 경북 포항점(국거리)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성)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화) 0620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 063022-5728 군산점(구.시정)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 063838-5900 남원점(시장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성)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 043222-1177-8 충주점(삼천로) 043852-1414 김천점(김천2가) 033647-0588 춘천점(철호로) 033823-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터)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Table with 3 columns: 광주 권도점, 광주 백운점, 순천점. Each column lists address, phone number, and website.